

토목·건설업계 전문가들 여수 온다

내년 대한토목학회 총회 앞두고 다음달 6일 정보공유 워크숍 대규모 행사 여행 연습 마이스·관광 마케팅 효과 기대

국내 토목·건설업계 최고 인재들이 국제해양관광 마이스(MICE)의 요람 여수시로 대거 몰려온다.

국내 굴지의 토목공학 전문 엔지니어들이 포진한 대한토목학회 총회가 내년 10월 여수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오는 10월 6일부터 7일까지 '2022년 지역건설 상생'을 위한 정보공유 워크숍이 대한토목학회 전남광주지회 주최로 개최된다.

여수시는 대한토목학회와 함께 대한토목학회 총회 유치를 확정하고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최근 시정 상황실에서 대한토목학회와 행사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회원 1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 총회 기간 100여명이 넘는 도시 경제유발효과와 함께 마이스·관광 마케팅 효과도 톡톡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한토목학회는 지난 1951년 창립해 약 2만 6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건설 분야를 대표하는 최대학회로, 지난 70여 년 동안 국내 토목 건설 분야 발전을 선도해 왔다.

총회 기간 전국의 토목 분야 교수와 기업체, 관련 종사자 등 1만여명이 참가해 국제 학술발표와 기념



여수시가 지난 19일 정기명 시장과 대한토목학회 허준행 차기회장, 이지우 전남광주지회장, 문인기 여수시 건설국장, 김문환 도시계획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토목학회 총회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여수시 제공>

식, 전시회, 1000여 편의 논문 발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여수시는 정기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대한토목학회는 전남도 공무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지역특산 품 및 관광 홍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대한토목학회 정기 총회가 그동안 서울 부산 등 광역시 이상 대도시에서만 개최됐던 만큼 중소도시인 여수에서 총회 유치가 성공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당선인 시절 허준행 대한토목학회 차기회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대한토목학회 총회 여수 유치를 위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토목학회 정회원인 문인기 여수시 건설국장과 김문환 도시계획과장 등 관계자들이 뚝뚝 뚝뚝 지난 4월부터 총회 유치를 위한 전담 팀을 꾸리고 총력을 쏟은 결과 이번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대한토목학회 총회 여수 유치는 중소도시 첫 유치라는 상징성과 함께 지역경제활성화와 마이스 선도도시 구축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더해져 거둔 값진 성과인 만큼 총회 성공 개최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시, 공공하폐수처리장 태양광 확대

전기에너지 절감·온실가스 감축 효과 기대

광양시가 기후환경 변화와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하폐수처리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한다.

시가 운영하는 5개소의 공공하폐수처리장은 시설운영 동력원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전기요금으로 연간 11억6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시는 에너지 절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유휴부지에 대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은 2007년부터 작년까지 중앙하수처리장 400kW, 광양하수처리장 380kW, 광영하수처리장 450kW 등 1230kW를 설치하고 연간 1억 279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있다.

내년에는 국비지원을 받아 태인폐수처리장(200kW), 진월하수처리장(100kW)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환경부 공모사업에 신청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비된 광양시의 공공하폐수처리장.

상태다. 김진호 광양시 하수처리과장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연간 전력사용량 1750MWh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이산화탄소)도 연간 775t을 감축해 기후 변화 대응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코스모스에 음악 신고

곡성군 내달 1~3일 석곡음악회

곡성군이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석곡면 대항강 자연휴식공간에서 제22회 석곡코스모스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코스모스 향기에 추억 낭만 사랑을 신고'를 주제로, 코스모스를 주축으로 구절초 등 다양한 조화류를 만나볼 수 있다. 대항강변의 코스모스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이슬을 머금고 자라 여느 도로가에 피어난 코스모스보다 더욱 생생하고 선명한 색을 띤다.

또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통기타 공연과 코스모스 노래자랑, 청소년 트롯 가요제 등 다채로운 음악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체험마당에서는 가족, 친구, 연인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민물고기 잡기, 가족공예, 비누공예 등도 펼쳐진다. 아울러 지역 특산물인 월하시와 흑돼지 숯불구이를 맛볼 수 있다.

박시열 석곡코스모스음악회 추진위원장은 "낮에는 대항강변의 산들거리는 코스모스, 밤에는 아름다운 야경 속에서 가을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곡성=박종태 기자 pj@kwangju.co.kr

가을밤 순천 문화재 야행·야숙 어때요

30일~10월 2일 문화의 거리·옥천변 일원

'2022 순천 문화재야행'이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순천 문화의 거리와 옥천변에서 열린다. 가을밤의 낭만과 함께 지역 문화재를 향유하는 야간형 프로그램인 '문화재야행'은 '옥천에 새겨진 역사, 문화로 꽃피우다'라는 주제로 야경, 야로, 야화, 야사 등 8야(夜)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순천문화재야행.

문화재를 직접 보고 듣고 느껴볼 수 있는 야사 프로그램은 장병석등 만들기, 푸조나무 칠보공예 등 행사장 곳곳에 위치한 문화재 앞에서 열린다.

행사장 내에 있는 순천역사박물관, 순천역사박물관에서 전시와 체험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특히 해설사와 함께하는 문화유산 투어는 남문터광장 신연자루에서 시작된다.

문화재를 발견하고 전문해설사에게 그 역사와 의미를 들을 수 있도록 해설 투어가 계획돼 있다. 참가자들은 순천 문화재야행 누리집 등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올해에는 특별히 '옥천캠핑'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없던 야숙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남문터광장 내부에 아늑하고 편안한 캠핑장을 조성해 야행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문화재와 함께하는 하룻밤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했다.

캠핑 장비가 갖춰진 곳에서 무료로 캠핑의 재미를 맛볼 수 있고 행사가 끝나는 심야에도 참가자들을 위한 별도의 공연 등이 준비됐다.

이 외에도 2022 순천 문화재 야행에서는 다양한 공방들이 참여하는 야시, '사평역에서'라는 시로 대중에게 친숙한 박재구 시인 등의 문인들이 옥천을 주제로 한 시로 꾸민 옥천 시서화, 순천 사진작가들의 전시회로 구성된 야화 프로그램 등 밤거리 낭만 요소도 가득하다.

행사 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순천 문화재 야행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농민 위해 뛰는 고흥군 수출개척단

유럽 유통사와 530만달러 협약

공영민 고흥군수가 이끄는 '고흥군 농산물 수출개척단'이 유럽의 글로벌 대형 유통사와 총 530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고흥군에 따르면 수출개척단은 지난 18일부터 5박7일간 체코(플젠, 프라하), 이탈리아(밀라노, 리미니) 등 유럽 글로벌 대형 유통사와 총 530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고 귀국했다.

수출개척단은 체코에서 ▲YUZU(주)와 210

만 달러 ▲케이터링(단체급식) 전문회사인 베이직푸드(주)와 90만 달러 ▲뉴트리션프로(주)와 140만 달러 ▲이탈리아 리미니의 케이터링 전문회사인 써머트레이드와 90만 달러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또 고흥지역 수출업체 보호를 위한 유럽현지 법무법인과 업무협약도 맺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 농산물의 국내의 판로개척에 발로 뛰며 농어민들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보성군 주민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보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지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하는 마음치유 프로그램은 제암산자연휴양림(전남환경성질향애방관리센터)에서 사전 홍보를 통해 모집된 지역주민 40명을 대상으로 9월 중 총 4회(20·22·27·29일)에 나누어 진행 중이다.

정신건강 선별검사와 상담과 기초 건강검진을 비롯해 원예치료, 제암산 숲 체험, 녹차 족욕, 정신건강 증진 교육 등 다양한 내용의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한편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 불안,



지역주민 대상 마음치유 프로그램 중 하나인 숲체험. <보성군 제공>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061-853-5500)로 연락하면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현재시공모습

스틸방수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